

여래종, 법우 스님 사리친견 행렬 줄이어

11월 14일 옥천 대약사사에 사리탑 제막



◇ 목탁 · 달마 · 코끼리의 형상을 한 법우스님의 사리



◇ 10월 1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법우스님의 다비식

“큰스님의 사리는 불자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 스님의 법구에서 은 사리를 비롯해 오색영롱한 사리 70여 과가 발견됐다. 법우 스님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실천불교’의 길을 평생 걸어왔기에 이번 사리 출토는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후에도 수많은 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불자의 환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래종(종정 인왕)은 스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승정 법계를 내리는 한편 11월 14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사리탑 제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9월 27일 열린한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스님의 법구에서 은사리(○부분)를 비롯한 70여과의 사리가 나왔다.

여래종 대승정 법우 스님의 법구에서 사리 70여과 출토



◇ 열반하신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스님

“큰스님의 거룩한 뜻이 다양한 모양의 사리로 출토되는 것 같습니다.” 9월 27일 열반한 10월 1일 여래종(종정 인왕)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다비식이 봉행된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 대승정의 법구에서 70여과의 사리들이 출토돼 화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일반사리에서 보기 힘든 은사리를 비롯해 목탁 · 달마 · 코끼리 등 다양한 형상을 가진 사리들이 나와 친견한 불자들은 스님의 높은 법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감탄하고 있다. 법우 스님이 1980년 창건해 입적 직전까지 주석했던 평택 팽성읍 용호사 신도회(회장 이상준)는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49제일인 11월 14일까지 사리친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10일 스님의 2재에 참가한 신도들은 사리를 친견하고 “평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스님이 불자들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셨다”며 “오색영롱한 사리로 환생한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봉사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래종은 11월 14일 49제일에 맞춰 옥천 대약사사에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할 계획이다.(031)691-6272



◇ 1980년 법우스님께서 창건한 평택 팽성읍 안정리 용호사



◇ 법우스님 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

실천불교 주창한 법우 스님

“형식과 권위를 따파하고 중생들이 사는 속세에서 그들과 더불어 지내는 종교인.” 평택 팽성읍 안정리에서 포교와 수행을 함께 펼치던 법우 스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말이다. 법우 스님은 고리에 얽매이지 않고 불교의 자비사상을 실천해 일반신도와 쉽게 접할 수 있는 포교를 하자고 늘 주장했다. 스님은 이런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몸소 고물을 수집해 판매한 금액으로 장학 사업을 벌이고, 불우이웃과 고아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법우 스님은 복지사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여래종 4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종단사업으로 금강유원지 뒤편에 현인복지마을 건립을 추진했다. 매해 용호사에서 정기적으로 노인·불우청소년을 위한 생활위탁금 전달법회를 개최했으며, 여래종 합창단과 신도들을 이끌고 선장리 정애양로원을 방문해 음성공양을 하는 등 위문행사를 갖기도 했다. 법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정식 혼인을 못 한 불자들을 위한 결혼식을 주선하고 직접 주례를 서기도 했다. 또한 몸 속에 큰 병을 가진 이후에도 평택 심장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심장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열반 직전까지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군포교도 법우 스님이 관심을 가진 분야였다. 법우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최전방 15사단 OP에 평화기원점등식을 열었으며, 평택 미군부대 내 보광사를 수시로 방문해 법회를 열어주고 각종 지원품을 전달했다. 이런 스님의 노력은 해외 불교국가까지 알려졌다. 여래종과 스리랑카 아마라푸라종이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문화교류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받아 법우 스님은 1989년 3월 외국인 스님 최초로 아마라푸라종 승에게 추대됐다. 법우 스님은 이후에도 스리랑카에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을 기념한 인왕도서관을 건립하고 최근까지 미얀마 바간의 불탑복원을 위한 모금 사업을 벌였다. 또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 용호사 신도인 스리랑카인 비아니 씨는 “스님이 외국인인 저를 딸처럼 귀여워해주셨다”며 “지갑 속에 넣어둔 스님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용호사는 평택지역 200여 스리랑카 불자들의 모임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스님의 어머니가 진관사에서 출가한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스님은 스스로 이판사판 사판승이라며 항상 겸양의 덕을 내보였다. 스님이 말하는 ‘실천불교’와 ‘생활불교’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것일 뿐 어떤 다른 의미도 없다”고 일버릇처럼 말했다고 용호사 신도들은 증언했다.

용호사 신도들은 “큰 스님이 실천하는 것만이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라는 가르침을 늘 내렸다”며 “노인복지 활동을 펼치려고 해운복지회를 만들었는데 활동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법우 스님 다비식 종단장으로 엄수

대승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대승자의 영결식은 10월 1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단장으로 거행됐다. 세계불교승왕령 최고위원 만오, 월산, 해광 스님 등이 참석한 다비식에서 장의위원장 법봉 스님은 “법우대승자가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를 통한 불교증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얀마 아마라푸라 종단과의 자매결연과 고아원후원 및 세계유산 바간 불탑복원에 힘썼다”고 기렸다.

10월 2일에는 수습된 사리가 공개됐다. 해안 스님은 “스님의 법신이 오색영롱한 무지개 광채를 띤 수습과 사리로 출현했다”며 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법우 스님 수행이력

9월 27일 입적한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 스님은 1941년 11월 25일 충청남도 천안 구서동에서 출생했다. 스님의 아버지는 김중철, 어머니는 최기례. 스님은 관악산 법륜사에서 출가해 인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인왕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문에 들어온 후 스님은 불교화 공부에도 매진했다. 불교대법대학 졸업하고 경희대 민족연구원을 수료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불교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었다.

법우 스님은 종단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여래종 포교부장을 시작으로 호법위원장, 감찰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소임을 4대째 맡았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환경분과위원장, 국제분과위원을 역임했으며 종단협 이사로서도 활동을 펼쳤다.

지역불교계에도 스님의 발자취는 뚜렷하다. 여래구도봉사단 지도위원장으로 불교자원봉사자들을 이끌었으며 평택시암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부처님 오신날 행사 등 여법하게 치루기 위해 힘을 쏟았다. 스리랑카 승경에도 추대됐으며 세계불교승왕령 최고위원을 맡아 해외불교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애썼다.

여래종 성남 약사사

남한산성 만덕산 약사사는 원래 여래종 종정 석인왕 스님이 옛 사찰 한홍사를 재건한 것이다. 한홍사는 신라 원금성사가 경찬한 묘법의 현의와 고려재판법사가 흥전한 법좌를 계승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백성을 제도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창건했다.

남한산성에는 명종 10년 을묘왜변 당시 한홍사를 위시로 19곳 사찰이 있었으며 3500여 의승군의 본거지인 군영이 자리잡고 있었다.

승군들은 불명을 외우고 선을 닦는 수행과 무술을 연마하는 함께하며 산성을 수비했다. 현재의 약사사는 한홍사를 개명한 것은 1968년 동방교주 약사여래불을 봉안한 후 약사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이 상주하고 승려의 교육장 수행처로 이용되고 있다.(031)734-3205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는 법우스님과 불자들



◇ 여래종이 복원한 미얀마 바간의 불탑



◇ 한-스리랑카 불교 교류 행사 모습



◇ 스리랑카에 세워진 여래종 인왕도서관